

[붙임 2]

글로벌대학 30 M-Campus
지역문제해결 공동프로젝트
수요조사서

공유협업팀

2025학년도 한림 M-Campus 지역문제해결 공동프로젝트 수요조사서

지 자 체 명	화천군청	신청부서	교육복지과
담당자/직위		연락처/이메일	
부서장/직위		연락처/이메일	

현안 문제	고령화에 따른 인구소멸지역 내 평생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 화천군은 전국에서 손꼽히는 고령화 지역으로,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절반에 육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역 내 인구소멸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음. 이러한 구조적 인구변화는 지역 공동체의 붕괴뿐 아니라 학습권의 불균형, 사회적 고립, 평생학습 수요 미충족 등의 문제로 이어지고 있음. - 현재 운영 중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디지털 소외, 이동의 어려움, 정보 접근성 부족 등 물리적·심리적 장벽으로 인해 고령층의 평생교육 참여율도 매우 한정적인 상황임. - 추진방향 · 지역 고령자의 생애주기별 학습 수요와 특성에 맞춘 맞춤형 평생교육 콘텐츠 개발 · 찾아가는 학습지원체계(예: 마을 순회형 교육서비스, 이동학습버스 등)의 도입 타당성 분석 · 고령층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평생교육과 자원봉사, 커뮤니티 활동의 연계 방안 마련 · 평생교육이 인구유출 방지 및 정주 유인 효과를 가지기 위한 지표 및 성과모델 제안 · 본 연구는 단순한 교육 접근성 확대를 넘어, 지역 고령 인구의 삶의 질 향상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실질적 대응전략을 마련.
공동프로젝트 연계 추진계획	-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고령친화 평생학습 마을」 조성 사업 기획 및 정부 공모사업 연계 추진 - 연구 결과물을 바탕으로 지역 평생교육 중장기 종합계획 개편(2026~2030) 시 반영 - 디지털 역량강화 및 문해교육 프로그램 확대의 실증 기반 확보를 통한 민관협력 플랫폼 시범 구축
기존 수행 이력	2022년 ~ 현재 「화천군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2025학년도 한림 M-Campus 지역문제해결 공동프로젝트 수요조사서

지 자 체 명	화천군청	신청부서	교육복지과
담당자/직위		연락처/이메일	
부서장/직위		연락처/이메일	

현안 문제	교육복지과 신설에 따른 지역 교육 및 경제 성과 변화 분석
	교육복지과는 2015년 신설 이후, 지역 내 교육 불균형 해소 및 학습 기회 확대, 취약계층 지원을 주요 목표로 다양한 교육복지사업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해당 사업이 지역사회에 미친 실질적 변화와 효과에 대한 정량적·정성적 평가는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2015년부터 현재까지 교육복지과의 주요 정책 및 사업 수행이 지역의 교육 성취도, 학교 중도탈락률, 학력 격차, 경제활동참가율, 청년 정주율 등 주요 성과지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자 합니다. 특히, 사업 도입 전후 비교, 인접 지역과의 성과 차이 분석 등을 통해 정책 효과성을 실증적으로 평가하고, 향후 정책 방향 및 개편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공동프로젝트 연계 추진계획	- 지역 단위 교육복지 정책의 성과지표 체계 수립 및 개선 - 정부 공모사업(예: 농산어촌 교육특화지역 사업) 지원 시 기초자료로 활용 -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교육복지 정책의 근거 기반 마련 및 조례 제정 연계 - 한림대학교와의 협업을 통한 실증연구 기반 마련 및 지역 상생모델 확산
기존 수행 이력	없음

2025학년도 한림 M-Campus 지역문제해결 공동프로젝트 수요조사서

지 자 체 명	화천군청	신청부서	문화체육과
담당자/직위		연락처/이메일	
부서장/직위		연락처/이메일	

현안 문제	월하 이태극 문학관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 제안 배경 화천 출신 문인 故 이태극 선생의 문학적 업적을 조명하고자 조성된 문학관이 2024년 완공되었으나, 개관 이후 프로그램 부재와 저조한 방문을 등으로 인해 공간 활용에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 현황 및 문제점 - 단순 전시 위주의 구성으로 방문객 체류시간이 짧고, 재방문 유도 요소 부족 - 지역주민과 청소년을 위한 교육·체험 연계 프로그램이 미비 - 타 지역과의 비교 시 스토리텔링 기반 콘텐츠가 부족해 차별성 약화 - 이태극 작가와 지역 정체성을 연계한 문화콘텐츠화 필요성 대두 ■ 요청사항 - 문학관을 기반으로 한 지역 맞춤형 문학 프로그램 기획 - 작가의 문학세계를 반영한 체험형 콘텐츠 개발(문학캠프, 창작워크숍 등) - 관내 학교 및 문화시설과 연계한 교육 프로그램 모델 수립 - 지역관광 자원과 연계한 스토리텔링형 문학길 조성 방안 제안
공동프로젝트 연계 추진계획	■ 프로젝트 결과를 바탕으로 실현 가능한 운영 콘텐츠와 활성화 전략을 마련하여, 향후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등 중앙부처 공모사업 신청 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 개발된 프로그램은 지역 청소년 문화교육, 문학관 연계 관광코스 구성, 주민참여형 문화행사 기획 등으로 연계 추진 가능 ■ 프로젝트 결과물은 타 지역 공공문화시설 운영 사례와 비교 검토하여, 장기적 운영 방향 수립의 기반 자료로도 적극 활용할 계획임
기존 수행 이력	■ (2022~현재) 전시 관람 ■ (2016~2021) 월하 시조 문학상 시상

2025학년도 한림 M-Campus 지역문제해결 공동프로젝트 수요조사서

지 자 체 명	고성군	신청부서	관광과
담당자/직위		연락처/이메일	
부서장/직위		연락처/이메일	

현안 문제	고성 관광 경쟁력 제고를 위한 관광 특화 콘텐츠 개발
	- 고성군은 그동안 SOC 기반의 인프라 중심 관광사업을 지속하였으나, 최근 관광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여 경쟁력 제고를 위한 관광 특화 콘텐츠를 개발, 시행하고자 함. - 고성군은 DMZ 평화의 길, 화진포, 청간정, 송지호 등 자연 및 역사문화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자원을 활용한 콘텐츠(스토리텔링, 지역 문화와 역사 자원 활용, 테마 관광상품, 주민참여형 체험 콘텐츠 등) 개발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고성군의 관심 분야는 아래와 같음. ① 지역 맞춤형 관광콘텐츠, 관광기념품 개발 모델 ② 해양관광, 야간관광, 평화관광, 종교관광 등 사계절 콘텐츠 확장 가능성 ③ MZ세대 대상 콘텐츠 기획(디지털 체험, SNS 연계 등) ④ 역사 . 문화 기반 스토리텔링 관광자원 발굴 및 기획 ex) 화진포 셔우드 홀 문화공간 연계 근대 선교사 순례 탐방, 대통령의 발자취 (화진포 역사안보전시관, DMZ 평화의 길 최초 개방 등) ⑤ 기존 SOC 기반시설과 연계한 관광상품 고도화 방안 ex) 광역 해양관광 복합지구 및 화진포 해양누리길 준공 ⑥ 관광객 데이터 기반 맞춤형 콘텐츠 및 마케팅 전략
공동프로젝트 연계 추진계획	- 관광객 체류 유도형 콘텐츠 개발을 위한 기초 수요 파악 - DMZ, 해양,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체험형 및 스토리텔링형 콘텐츠 발굴 ☞ 관광 스토리텔링 콘텐츠(이탈리아 베로나 ‘줄리엣의 집’ 모델 참고하여 고성군 만의 특색있는 콘텐츠 발굴 : ‘선녀와 나무꾼’ 전설의 금강산 감호) - 지역주민, 관광사업자, 청년 등이 참여하는 관광활성화 협력모델 모색 ☞ 비물질적 . 경험적 가치 중심의 콘텐츠 개발 프로젝트 추진 필요
기존 수행 이력	해당사항 없음

2025학년도 한림 M-Campus 지역문제해결 공동프로젝트 수요조사서

지 자 체 명	고성군	신청부서	고성문화재단
담당자/직위		연락처/이메일	
부서장/직위		연락처/이메일	

현안 문제	고성명태축제 지역경제와 도시브랜드 동반성장
	[제시목적] - 고성군은 지역 대표 수산물인 명태를 활용하여 고성명태축제를 개최해 왔으며, 이를 통해 지역 이미지 제고, 관광객 유치,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지역성과 관광성의 결합이 미흡하고 정체성 부족하다는 의견과 단발성, 단편성 이벤트 중심으로 역사성, 스토리텔링 확장성 미흡하다는 의견이 공존 1) 축제의 경제·사회·문화 파급효과 및 정량·정성적 효과를 통해 축제 지속에 대한 타당성을 높일 필요 2) 기존 축제 운영 방식의 한계점 진단과 지속가능한 모델로의 전환 필요 3) 명태를 활용한 브랜드 자산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 등 도시브랜드로 도약 필요 [주요문제점] - 관광객 수 외에는 실질적인 경제, 문화적 효과를 측정하지 않고 장기적 비전 없이 반복적으로 개최 되어 왔음. 지역 상권과의 장기적인 연계(상품개발, 공동마케팅/홍보, 브랜딩화)에 대한 노력과 관심 부족 - 도시기준에 맞춰진 축제 메뉴얼 및 안전관리에 따라 주민참여의 불편함 가중되어 주운영자여야 할 지역주민으로부터 외면 - 지역내에서 거진만의 축제, 오래된 축제, 옛날축제라는 인식이 강하고 축제 존폐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상황 [추진방향] ** 단순 평가가 아닌, 향후 고성명태축제의 전략적 리뉴얼과 지역경제활성화를 함께 견인하는 지역 기반 공동 프로젝트 1) 성과 분석 체계화 - 경제적 정량지표 수립 - 사회, 문화적 정성평가 지표 수립 - 타 축제 사례와 비교 가능한 성과분석 적용

	2) 지속가능한 축제모델 전환 방안 -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계절형 테마축제로(사계절수산물축제) 확장 가능성 검토 - 명태 스토리텔링 강화: 어업 역사, 식문화, 생태 등 문화적 서사 강화 - 지역 주민 및 청년이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공동기획 시스템 도입 방안 제안 - 지역상황에 맞춘 현실적 매뉴얼 및 행정-중간조직-민간의 역할 분담 3) 지역경제 연계 전략 - 축제기간 동안 소상공인 매출 분석 및 매출증대 방안 제시 - 지역 관광 루트, 명태 상품 개발 등 연계 경제모델 도출 - 지속적인 명태 브랜드 육성을 위한 콘텐츠 및 상품화 방안 제시 4) 타 지자체 우수사례 비교연구 병행 - 화천산천어축제, 강릉단오제 등과의 주민조직(민간)-행정-중간조직 운영 구조 및 성과 비교 - 지역 특산물 기반 축제의 경제파급효과 분석 사례 연구
공동프로젝트 연계 추진계획	고성명태축제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 및 지원 정책, 제도 개선 민간 참여 확대 및 민·관 거버넌스 체계 마련 6년 이내 문화관광축제 선정 목표
기존 수행 이력	

2025학년도 한림 M-Campus 지역문제해결 공동프로젝트 수요조사서

지 자 체 명	강릉시	신청부서	문화유산과
담당자/직위		연락처/이메일	
부서장/직위		연락처/이메일	

현안 문제	강릉시 문화유산 기반(활용)을 통한 관광활성화 방안 용역
	- 강릉시는 인구감소지역으로서 관광에 대한 비중이 높지만, 지역문화유산을 활용한 관광 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임 - 강릉시가 보유한 문화유산(136점)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와, 국내·외 문화유산 활용 사례에 대한 조사를 통해 문화유산 활용 관광 활성화를 접목시키고자 함 - 또한 문화유산 활용 시 국가 유산관련 법령의 적용범위 및 한계에 대한 조사도 하고자 함
공동프로젝트 연계 추진계획	- 관광프로파일링 분석: 관광생활인구 주요 관광행태 분석 : 체류성 비중, 주중/주말 비중, 정기성 비중, 정기성별 주중/주말비중 : 체류 기간별 분석, 신용카드 사용처 분석 등 - 문화유산에 대한 각종 시설물 설치 및 야간 경과 등에 대한 사례 분석
기존 수행 이력	

2025학년도 한림 M-Campus 지역문제해결 공동프로젝트 수요조사서

지 자 체 명	강릉시	신청부서	관광개발과
담당자/직위		연락처/이메일	
부서장/직위		연락처/이메일	

현안 문제	강릉시 해양레저 현황분석 및 활성화 전략 연구
	- 해양레저 사업은 관심도와 접근성의 향상으로 성장 잠재력이 높고, 어촌 소멸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연계 콘텐츠로도 각광받고 있음. 강릉시 또한 해양자원을 다수 보유하고 있기에 해양레저 사업이 활성화되기에 적합함. - 현재 강릉시에서는 서핑, 카이트 보딩, 요트 세일링 등 여러 가지 해양레저가 마련되어 있으나, 각 해변마다 적절한 해양레저 분석이 부족하여 계절에 국한된 해양레포츠 뿐이라 사계절 이용이 가능한 해양레저 발굴 및 활성화 전략 마련 필요. - 또, 현재 다른 시군에서는 그 지역만의 특색이 있는 해양레저를 보유하고 있어, 경쟁력을 위해서는 강릉 또한 브랜드화 할 수 있는 특징적인 해양레저 연구 필요.
공동프로젝트 연계 추진계획	- 강릉시에 있는 기업체(해양레저 등)와 연계할 수 있는 방안 연구 필요
기존 수행 이력	

2025학년도 한림 M-Campus 지역문제해결 공동프로젝트 수요조사서

지 자 체 명	강릉시	신청부서	기획예산과
담당자/직위		연락처/이메일	
부서장/직위		연락처/이메일	

현안 문제	교육발전특구 정식 지정을 위한 운영성과 제고 방안 및 발전방향 연구
	- 교육발전특구 시범운영기간(“24~26”)종료 후 정식특구로 지정되기 위해 특구 운영의 지속 발전 가능성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성과 제고/확산 방안 모색 필요 -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이 56개* 지정되어 특구 난립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지역의 특성화 전략을 마련하고, 향후 지역의 수요를 반영한 중장기적 교육발전 모델 발굴이 요구됨 - 지정현황: (1유형) 41건, (2유형) 7건, (3유형) 8건
공동프로젝트 연계 추진계획	- 분야별(유아/돌봄, 초중고, 지역발전 연계, 지역정주) 주요 추진현황 모니터링, 성공 요인 및 전략 등 상세 분석 - 기회발전특구 등 기타 특구와의 시너지 제고 방안 제시 - 교육청과 연계 협력 강화를 위한 협업사업 모델 제시, 제도 개선사항 - 교육 정책에 대한 학생/학부모의 인식 및 만족도 조사 - 지역의 성과를 견인할 수 있는 종합평가 지표 마련 - 교육발전특구 정식 지정을 위한 비전 설정 및 성공적 추진을 위한 구체적 발전방안 제시 - 타 시도 및 해외사례분석을 통한 특구 모델 발굴
기존 수행 이력	

2025학년도 한림 M-Campus 지역문제해결 공동프로젝트 수요조사서

지 자 체 명	강릉시	신청부서	기업지원과
담당자/직위		연락처/이메일	
부서장/직위		연락처/이메일	

현안 문제	지역 특화 천연물 기반 고기능성 바이오 소재 개발 및 상용화 전략
	- 강릉 지역은 천연물 유래 바이오 소재 연구의 거점으로, 강릉 KIST 천연물 연구소와 국립강릉원주대학교 등 연구소 및 학문적 기반을 보유하고 있음. 천연물 바이오 산업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높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지역별 특산물을 활용한 맞춤형 소재 개발로 지역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음. - 고령화 사회와 코로나19 팬더믹 이후 면역력 강화 및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수요 증가로 천연물 바이오 소재 산업의 중요성이 대두하고 있는 실정임. K-Food, K-Beauty 등 현재 K-열풍으로 인해 세계적으로 높은 인지도를 확보하고 있으며, 이러한 산업적 인프라는 천연물 바이오소재 기술을 융합할 기반이 될 것임. - 강릉원주대학교는 관련 연구 및 교육사업을 20년 이상 수행하며, 전문인력 양성과 기술 역량을 보유하고 있음. 강릉지역의 천연물 바이오 관련 기업 그리고 연구소와의 협업을 통해 천연물 바이오 소재의 기술 개발 및 상용화 가능성을 제고. 천연물 바이오 소재 기술개발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이자 지속적인 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할 것이라 예상됨.
공동프로젝트 연계 추진계획	- 지자체, 지역 대학, 지역연구소, 강릉 소재 기업 간 긴밀한 협력체계 및 정기 소통 시스템 구축을 통한 지산학연 협력 강화 - 전문 인력 양성 및 정착을 위한 정책적 인센티브와 연구비, 행정/재정 지원 방안
기존 수행 이력	

2025학년도 한림 M-Campus 지역문제해결 공동프로젝트 수요조사서

지 자 체 명	강릉시	신청부서	항만물류과
담당자/직위		연락처/이메일	
부서장/직위		연락처/이메일	

현안 문제	옥계항을 활용한 강원권 수출입 물류 경쟁력 향상 방안 연구 - 우리나라는 해상물류가 전체 무역의 99.7% 차지 : 우리나라의 무역의존도 85%. 전체 무역 중 해상물동량 99.7% 해운물류의 중요성 매우 높음 : 항공운송비는 해상운송비 대비 19.9배 : 컨테이너 항 부재로 강원권 수출입 기업 물류비 부담 가중 ※국가 평균 단위물류비 대비 강원지역 물류비 약 1.7배 ✓ 과도한 물류비 부담이 지역의 기업 활동 및 신규기업 유치에 장벽으로 적용
	- 새로운 수출입 항만(컨테이너) 조성으로 항만물류 효율화 필요 : 부산한 컨테이너 물동량 점유율 76.6% 처리능력 대비 104%포화상태 → 부산항에 치우친 물류 분산 위한 대체 항만 조성 - 높은 내륙 운송 비용, 부산항을 통한 수출입 부담 완화 필요 → 수도권/강원권 컨테이너 물동량 새로운 수출입 창구로 동해안권 컨테이너 부두 개발 필요성 대두 - 옥계항은 수도권과 접근성 측면에서 부산 대비 육상 수송거리 약 140km 단축 가능 ✓ 내륙 운송에 따른 비용과 시간 대폭 절야 가능
	- 석탄/시멘트 산업 위축, 활용도 떨어진 지방관리 무역항 옥계항 : 북극항로 시대 환동해권 북방 해상물류 새로운 전진기지로 선제적 구축 → 한반도 철도 교통말 허브/해운물류와 결합한 시너지 극대화 → 해상풍력발전과 결합해 탄소중립 스마트항만 조성 ⇒ 옥계항을 활용해 강원권 수출입 물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옥계항 개발 전략과 옥계항 연계한 물류 경쟁력 증대 방안 및 지역경제 파급 효과 등 연구 필요
	공동프로젝트 연계 추진계획 -
기존 수행 이력	-

2025학년도 한림 M-Campus 지역문제해결 공동프로젝트 수요조사서

지 자 체 명	횡성군	신청부서	가족복지과
담당자/직위		연락처/이메일	
부서장/직위		연락처/이메일	

현안 문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26.3.27)에 따른 횡성형 노인통합돌봄 사업의 발전방향 모색
	○ 횡성군은 전체인구(46,111명) 중 노인인구가 36.7%, 70세 이상 노인인구가 23.6%를 차지하고 있는 초고령사회 임. 또한 건강하지 못한 노후 및 노인 부양의식변화, 사회적 돌봄 요구 증가로 인해 의료 및 돌봄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이에 통합돌봄지원법(약칭) 시행에 대비하고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등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횡성군 만의 특색있는 돌봄정책 발굴 필요. ○ 횡성군은 민선8기 공약사항으로 횡성형 노인통합돌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수요자 중심의 정책발굴 및 지속적으로 증가 될 돌봄 욕구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기존사업에 대한 feedback 필요.
공동프로젝트 연계 추진계획	○ 기 추진하고 있는 노인 통합돌봄사업의 분석을 통해 기존 사업을 upgrade ○ 횡성군만의 특색있는 노인 통합돌봄사업의 다양한 시책 개발을 통해 돌봄욕구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정책수행
기존 수행 이력	- 2025년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기술지원형 기본계획 - 2025년 횡성형 노인통합돌봄 추진계획

2025학년도 한림 M-Campus 지역문제해결 공동프로젝트 수요조사서

지 자 체 명	홍천군	신청부서	경제진흥과
담당자/직위		연락처/이메일	
부서장/직위		연락처/이메일	

제목 : 지역기업 구인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 고용 정책 확대

○ 제시목적: 도내 대부분의 시군과 마찬가지로 홍천군도 인구감소지역으로서 고령화와 생산인구 감소문제를 겪고 있음. 관내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에서는 심각한 인력난을 마주하고 있어 내국인이 취업을 기피하는 농공단지 내 공장 등 관내 기업에 외국인 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

○ 현황 및 주요 문제점

- 홍천군 산업단지 현황

(단위: 개, 명)

번호	유형	단지명	조성상태	노후산업단여부	고용현황	외국인	비고
계		6		3	1,076	83	
1	일반	홍천북방	완료	노후	292	-	
2	도시첨단	홍천	미개발	-	-	-	
3	농공	상오안	완료	노후	328	26	
4	농공	양덕원	완료	노후	169	-	
5	농공	화전	완료	-	287	57	
6	농공	북방	조성중	-	-	-	

- 홍천군 공장등록 현황

합계	식음료	섬유복의	목재종이	석유화학	비금속광물	전기전자	기계장비	기타
185	87	2	7	26	21	20	18	4

○ 과제추진방향

-지역특화형 비자나 강원특별자치도 특례 등에 '외국인 고용 확대' 등을 반영하기 위한 활동이 데이터 기반 자료의 부족으로 설득력을 얻지 못함.

- 단지별 고용인원 현황은 파악 가능하나, 실제 고용 수요가 어느 정도이며, 현재 고용된 인원과의 격차는 어느 정도인지 등의 현지조사가 요구됨.

현안 문제

공동프로젝트 연계 추진계획	- 조사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강원특별자치도에 필요한 외국인 고용 정책 등을 발굴하여 정책 제안하거나 반영시키고자 함.
기존 수행 이력	- 강원특별법 신규 특례발굴 및 법제화를 위한 워킹그룹(외국인 분과) 안건으로 논의(2회, 2023.08.28., 2025.03.11.) -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제조업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강원특별자치도시장군수협의회 정례회 안건으로 제출(2024. 6월)

2025학년도 한림 M-Campus 지역문제해결 공동프로젝트 수요조사서

지 자 체 명	양양군	신청부서	농정축산과
담당자/직위		연락처/이메일	
부서장/직위		연락처/이메일	

현안 문제	제목 : 양양 신활력 그 이후”를 준비하는 중간지원조직의 자립방안 전략수립(양양신활력플러스사업단의 자립성장 프로젝트)
	양양군 신활력플러스사업은 “건강한 지역 먹거리에 리얼(Real) 농촌 문화를 입히다, 양양 신활력 프로젝트 실현”이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로컬푸드 활성화 기반 구축, 플랫폼 개발, 산업화 연계, 지역 혁신체계 조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지역 먹거리 순환체계의 틀을 마련하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연결되는 유통 생태계 및 지역공동체 조직의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그러나 2026년 사업 종료를 앞둔 현재, 다음과 같은 주요 현안들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사업의 지속성과 자립 기반 확보에 심각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1. 자립적 운영 모델의 부재 현재 신활력플러스사업단은 사업 종료 이후의 독립적 운영 구조가 부재한 상태이며, 이에 따라 향후 지속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설령 일부 인건비 지원이 가능하더라도, 지금까지 조성된 향토자원, 마을개발 기반, 민간조직 등 지역자산을 활용한 자립화에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양양군의 지역 특성과 자원을 반영한 맞춤형 자립모델 개발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2. 로컬푸드 생산-소비 연결의 약화 우려 지금까지 구축된 로컬푸드 유통 구조는 임시 직매장 운영과 이벤트 중심의 운영으로, 일정 수준의 성과를 도출하였으나, 사업 종료 이후에도 지속가능한 형태로 생산자-소비자 간 연결을 유지할 수 있는 상시적 플랫폼이 부재합니다. 이에 따라, 로컬푸드 유통·홍보·소비 촉진을 위한 통합 플랫폼 및

	운영주체 마련이 시급합니다. 플랫폼 기반 없이 개별 단위의 활동만 지속될 경우, 전체 로컬푸드 활성화 전략은 분절화될 우려가 큼니다. 3.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재정립 필요 현재 사업단은 중간지원조직으로서 현장과 정책을 연결하는 허브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사업 종료 이후에는 그 역할과 정체성이 불명확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신활력플러스사업단의 정체성과 법적·행정적 위상 재정립, 조직의 물적 기반 확보, 지역정책 연계 및 거버넌스 체계 내 공식 주체화가 필요합니다. 또한, 지역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정책 통합형 중간지원조직 운영모델 수립을 통해, 로컬푸드 활성화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역자립형 사업 수행이 가능한 지속 가능한 운영체계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위와 같은 과제 해결을 위해, 양양 신활력플러스사업단은 한림대학교 M-Campus와의 공동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지역 먹거리 산업과 청년 창업, 관광 콘텐츠, 정책 설계 등을 통합한 지속 가능한 자립화 전략을 수립해 나가고자 합니다.
공동프로젝트 연계 추진계획	1. 제안목적 -신활력플러스사업 종료 후 자립형 중간지원조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공동 프로젝트 제안 2. 추진 배경 -2026년 사업 종료 이후 지역사업 지속성과 조직 자립 기반 필요 -한림대학교의 ICT, 식품, 창업, 정책 분야 전문성과 지역 자원의 연계 필요 -공동 플랫폼 구축 및 인재양성을 통한 지역 내 지속가능 생태계 조성 3. 공동프로젝트 개요 3-1. “서핑과 숲을 잇다” - 관광 콘텐츠 플랫폼 구축 -플랫폼 개발 (웹/앱) 및 체험 예약시스템 구축 -서핑, 농촌, 숲길 트레킹 등 복합 관광 콘텐츠 운영 -지역 주민 대상 코디네이터 양성 교육 3-2. “로컬푸드×헬스푸드 랩” - 기능성 식품 브랜드화

- 양양 특산물 기능성 분석 및 식품개발
 - 건강식품 및 간편식(HMR) 브랜드 공동개발
 - 로컬푸드 유통체계 구축 및 품질관리 지원
- 3-3. “로컬창업 스튜디오” - 청년 창업 인큐베이팅**
- 로컬 문제 기반 창업 해커톤 운영
 - 창업자 대상 멘토링 및 코워킹 공간 제공
 - 청년 세어마켓 및 직매장 연계 판매 채널 확보
- 3-4. 정책 기반 중간지원조직 운영모델 수립**
- 중간지원조직 법인화 또는 민관협치 모델 설계
 - 정책학 교수진 자문단 구성 및 실행 로드맵 수립
 - 지역 내 정책사업 연계 추진

4. 협력 학과 및 연계 분야

- 협력 분야 관련 전공/부서
- 관광·콘텐츠 ICT융합학부, 관광경영학과
- 기능성 식품 식품영양학과, 의과대학
- 창업·지역문제 창업지원단, 사회학과, 도시계획 전공
- 정책 설계 행정학·정책학 교수진 (M-Campus)

5. 자립화 기반 및 기대효과

분야	자립화방식	기대효과
관광플랫폼	체험 수수료, 예약시스템 운영 수익	관광객 유입, 지역 매출 증대
기능성식품	제품 판매 및 로열티 수익	지역 농가 소득 향상, 브랜드 가치 상승
청년창업	임대 수익, 창업 지원 과제 수주	청년 정착 유도, 지역 혁신 활성화
정책실행	공모과제 수행 군 정책 대행	중간지원조직 위상 정립, 사업 지속성 확보

6. 협력 요청 사항

- 각 학과의 전문 인력 배정 및 연구 커리큘럼 연계
- 공동 브랜드 및 정책 사업에 대한 자문 참여
- 협약 체결을 통한 정기 협의체 구성

7. 향후방향

양양신활력플러스사업단은 한림대학교 M-Campus와의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로컬푸드 유통 구조 마련, 지역사회 정책 실행 파트너로서의 역량 강화, 자립 운영 기반을 갖춘 중간지원조직 모델 구축을

	목표로 합니다. 공통 프로젝트를 바탕으로 정책·유통·청년창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과 대학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나갈 예정입니다.
기존 수행 이력	1. 로컬푸드 직거래 기반 구축 ‘매일아홉시 로컬푸드마켓’ 임시 직매장을 마련 및 운영하여 지역 농산물의 소비 촉진 및 생산자 안정적 판매처 확보 2. 지역 농특산물 가공 및 상품화 표고버섯 가공품 개발, 감자 기반 서퍼푸드(감자고로케) 개발 등 신메뉴 개발 및 기술 이전 추진예정 3. 지역 체험프로그램 운영 앵두축제 연계 체험 프로그램, 치유농업 체험 콘텐츠 등을 통해 문화자원 발굴 및 지역 공동체 활성화 4. 지역활동가 및 공동체 조직화 268명 수료생 배출(로컬푸드 아카데미 등) 14개 액션그룹, 9개 지역공동체 조직 발굴·육성 5. 로컬푸드 홍보·판로 확대 메가쇼·농업박람회 등 대형 박람회 참가 지원 영상 콘텐츠 및 SNS 홍보, 이벤트를 통한 직매장 브랜드 이미지 제고 양양신활력플러스사업단의 자립성장 프로젝트는 한림 M-Campus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의 공동의 과제를 발굴하고 지역역량을 결집하여 지역주민들과 함께 더 살기좋은 양양을 만드는 중간지원조직으로서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입니다.